이상복명과
50년 전통 명품 수제빵
(경주빵, 찰보리빵, 계피빵)
gjbakery.com ☎1599-3301

경상투데이
gyeongsangtoday.com
(제2695호) 대표전화 054-748-0070 팩스 054-748-3663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음 2월 13일)

경상북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가까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됩니다)

SOM1 잇단 찬사… 경북·경주, APEC 성공 개최 쐐기

교통·숙박·문화·관광 등 전 분야
참신한 행사로 국가 위상 높여
만족도 조사 실시 평균 94점 호평
올해 추진 핵심 과제로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선정 제시
경험 토대로 본 행사 준비 철저

지난 9일 경주 HICO 일원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24일부터 경주 HICO 일원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SOM1에서는 28개 회의체, 100여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21개 회원 대표단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객들은 경북-경주의 SOM1 준비에 연신 감탄하며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 당초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를 종식했다는 평가다. 또한 경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이들의 입소문이 각 회원 정상뿐 아니라 세계적 CEO들의 마음을 경주로 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APEC준비지원단은 정상회의에 활용하기 위해 SOM1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5개 분야(수송, 숙박, 문화공연, 관광, 시설·운영지원)로 구성했다. 평균 485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점수는 94점(수송 94점, 숙박 92점, 문화공연 93점, 관광 96점, 시설·운영지원 95점)으로 전 분야에서 행사 진행 수준이 높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9일 제1차 고위관리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성미 SOM 의장은 APEC이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AI',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APEC준비지원단과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선시한 것은 대표단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경북-경주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품격 있는 회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실 기반 구축은 물론 수송, 숙박, 의료, 질서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문서 없는 회의를 표방하는 APEC을 위해 HICO 내 영상 프로젝터를 국제회의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영상시설로 교체했다. 또 배차 간격을 30분 단위로 운영해 대표단 편의를 향상했다.

5개 지정호텔에는 전용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대표단의 요구사항 대응, 셔틀 안내, 관광지 소개 등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라마단 기간에는 행사장 케이터링으로 무슬림을 위해 이프타르를 제공하는 섬세함도 빛났다.

HICO 내 의무실을 운영하고 구급차 3대를 24시간 대기시켰다. 또한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경비, 질서유지, 건물안전진단, 화재예방, 대테러 활동 지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대비, 식음료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로 한점의 사건·사고 없는 행사를 치러냈다.

이번 SOM1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북-경주' 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대표단은 HICO 1층에 위치한 우아하고 세련된 한국적 전통미를 살린 실내장식과 LED 미디어월을 융합적으로 공간 설계한 경북-경주홍보관, 야외전시장에 설치된 지름 20m-25m-20m의 연결된 투명 에어돔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돼 눈을 떼지 못했다.

투명 에어돔에서 진행된 △전통 공연 △한복 패션쇼 △태권도 퍼포먼스 △K-POP 댄스 △미용 메이크업 쇼 △5韓(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을 주제로 전시·체험 △경주 대표 명소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감성스토어 △도내 우수 뷰티 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한 K-뷰티존 △한류의 특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청년 창업 제품을 전시 판매한 청년기업관도 인기를 끌었다.

야외전시장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테마의 전통놀이 체험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한국의 향기(The Essence of Korea)'를 주제로 한 '스틸아트' 전시는 한국 전통 예술과 첨단 철강 기술의 조화를 선보여 우리 산업과 문화의 우수성을 전달했다. 9m 화폭의 '강산무진도', 조선 시대 회화의 걸작인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이 전시됐다.

지난 7일 환영 만찬 시 접이식 액자로 만든 스틸아트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과 윤정인 고위재무관리회의 의장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액자에는 불국사 전경 등이 담겨 있다. 스틸아트 기념품은 중앙부처에서도 해외 교류 협력 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I 기반 실시간 응답형 통번역기기(페르소-29개 언어 지원, 플리토-38개 언어 지원)도입은 언어장벽을 뛰어넘는 AI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대표단의 수요에 맞게 시간별, 테마별로 준비한 블레저 관광프로그램도 절찬리 운영됐다. 겨울철이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석자들이 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 외에도 시내권 숙박 및 음식점을 이용하고 황리단길과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동부 사적지 일대 탐방(투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이번 행사 성공을 위해 미소 천사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탰다.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재들은 신라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환한 미소로 대표단을 맞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항과 경주역, 터미널, 셔틀버스, 호텔, HICO 내부, 야외전시장, 주요 관광지 등 그들이 없는 곳은 없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SOM1 막바지 21개 회원 고위관리회의와 재무 차관회의 참석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환영 만찬이었다. 칵테일 리셉션에서는 경북-경주를 대표하는 36종의 전통주가 전시됐고 이 중 대몽제, 안동소주 등 12종의 전통주 시음행사를 병행했다. 만찬 및 건배주로는 '월영', '교동법주'가 쓰여 우리 전통주의 매력을 뽐냈다.

환영 공연은 '천년의 역사를 무대로 세계와 지역의 전통이 어우러지는 신라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국악과 현대 음악의 하모니로 구성됐다. 마지막 곡인 'We Are the World'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좌우로 손을 흔들고 그야말로 모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모인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주낙영 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기에 이번 SOM1 성공 개최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행연습은 끝났다! 올가을 세계가 경북-경주에 놀라도록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APEC 핵심과제가 AI와 인구로 선정됐는데 AI와 인구문제에 대해선 우리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APEC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우뚝'

안동시·예천군, 중기부 공모 선정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경북도가 전국에서 벤처·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 2곳이 신규 선정돼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일원과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에 신규 건립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 67개소의 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올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준공한 포항과 건립 중인 영천, 경산 등 총 5개소를 구축 및 운영한다.

도는 올해 전국의 신규 8개소 지식산업센터 중 2개소를 최다 선점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 창업 기반 시설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은 올해 각각 설계비 10억원, 5억원씩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5년간 국비 271억원(안동시 160억원, 예천군 111억원)을 단계적으로 교부받는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돼 2023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절차를 앞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중기부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60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하게 됐다.

도청 신도시가 소재한 예천군은 산업기반이 약한 도청 신도시에 ICT 육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전략적 연계로 중소벤처기업 창업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북부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 혁신 전략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희망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이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YouTube 경상투데이

18년째 첫삽도 못 뜬 '영일만대교' 공사 촉구

이칠구 도의원, 도정질문 관련
적정성 재검토 심의 2년간 지연
경북도 차원의 기민한 대응 필요
TF수준 아닌 전담부서 신설 요구

이칠구(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18년째 첫삽도 못 뜨고 있다"라며 경북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 4553억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작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이 의원은 "영일만대교 완공 시 남북으로 단절된 동해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져 물류비용 절감, 이동 거리·시간 단축,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올해 안에 무조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인 포항시 대표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일만항의 확장 및 가스 하역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 민자 개발 구간이 현재 기업의 자금 조달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국비 사업 전환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구성된 가스전 개발 대응 T/F 수준이 아닌 전담부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국책사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조강생산 세계 7위인 포스코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미국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 원가 상승, 환경규제 등으로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탈탄소 철강생산 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도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포항에 개청한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경북 제2청사로 육성하겠다던 당초 도지사 공약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본청 부속 조직이 아닌 철강·금속·에너지·해양자원 관련 부서를 동부청사로 이전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누구나 원활한 구급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박순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통역·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 담아

박순범(사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119구급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119구급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북도의 119구급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의회, 구미亞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까지 '적극 지원'

1차 본회의 후 전 의원 퍼포먼스
경북도·구미시와 긴밀 협력 약속

경북도의회는 2025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제353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도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해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비 과정에서 경북도 및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다음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다.

특히 APEC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같은해 5월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초전이자 APEC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경북도의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 홍보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올해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구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구 500만 도시인 중국 샤면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이다.

한편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올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송군의회,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힘'

동대병원·郡보건의료원 주최
CPR·심장자동충격기 등 교육

청송군의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청송군의회와 함께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심폐소생술교육센터와 청송군보건의료원이 공동 주최해 진행됐다.

또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심장자동충격기(AED)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칙과 실습을 직접 경험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심장자동충격기(AED) 사용법을 배우며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처치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청송군보건의료원이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포항시의회, 동빈대교·해도동 도시 숲 계획지 '꼼꼼 점검'

건설도시위, 주요 사업 현황 살펴
문제점·대책·개선방향 등 논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동빈대교 건설공사 현장과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 숲 조성 계획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동빈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4차로의 395m 교량이다. 당초 오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경북도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 도로 개통이 예정됐다.

'해도동 생활밀착형 도시 숲'은 공단 배후 지역인 해도동 일원에 도시 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려는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되도록 하고 특히 동빈대교의 경우 준공 일정이 단축된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경북, 세계인문학포럼 성공 개최 '준비 만반'

교육부·안동과 양해각서 체결
교통·숙박·관광 분야 공동 후원
연구자·시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지역 경제·관광 산업 활성화 '힘'

교육부와 경북도, 안동시는 지난 10일 국립경국대 국제교류관에서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인문학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문학 가치를 확산하는 국제적 학술 행사로 격년으로 열리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고 국내외 연사와 참가자 편의를 위한 교통, 숙박, 관광에 대한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 연구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럼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인문학적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8회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뛰어난 문화유산이 숨 쉬는 유서 깊은 도시 안동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관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로 안동시가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경북도와 안동시가 세계 인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의 인문학 기반을 활용해 역대 세계인문학포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 위해 '팔 걷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현판식
전담인력 배치 '소통 창구 확대'

경북도는 도내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 증진을 돕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도는 10일 구미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분야 공공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규제 전담 인력 배치와 전문위원까지 위촉한 지원팀을 꾸려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자활성화과를 새롭게 출범시키며 '기업을 위한 경북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혁신과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통합했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 있는 규제혁신 업무와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현장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개 부서로 통합한 건 처음이라며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해법은 물론 지역 산업현장에 투자를 촉진하는 사례들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는 새로운 규제혁신 기업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초기부터 상공회의소에도 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전문가,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와 포럼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하에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 설명 '기업의 규제 및 고충 사항 등 의견 청취',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등 규제혁신의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개소식에는 윤재호 경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을 포함한 도내 기업지원기관장들도 참석해 규제혁신과 기업을 위한 경북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윤재호 협의회장은 "기업투자는 적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경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살아나는 투자 불씨를 더 활활 살리고 기업규제와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은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규제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증진하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수산자원硏, 어린 전복 '바다로'…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14일까지 51만마리 분양·방류
재포획률 높아 어민 선호도 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고부가 전략 품종인 어린 전복 51만마리를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 마을 어장에 무상 분양,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전복 애조개는 지난해 4월 채란 후 약 12개월 동안 사육 방법과 환경 개선을 통해 4㎝까지 성장한 것으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안전성이 검증된 우량종자다.

전복은 예로부터 자양 강장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큰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기력과 원기 회복에 도움 되는 대표적인 보양 식재료다.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고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아미노산이 풍부해 노약자의 병후 회복과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전복은 정착성 품종으로 방류한 지역 주변에서 살아 재포획률이 높아 어업인이 선호하는 방류 품종이다.

방류하는 어린 전복은 2~3년이 지나면 7~8㎝까지 성장해 상품 크기에 도달해 어촌계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어린 전복을 해마다 50만~60만마리를 방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77만마리를 방류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마을 어장의 주 소득원인 전복 방류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복뿐만 아니라 어업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어패류의 생산과 방류로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방과후학교 투명성·신뢰성 높여

경북교육청은 11일 방과후학교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방과후학교 청렴도 향상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방과후학교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4대 전략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정비 △방과후학교 청렴 문화 조성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강화 △부패 방지 모니터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강사 선정과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 행정실장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탁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학교장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계열회사 등이 학교와 계약하거나 시설·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이해충돌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한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오리엔테이션과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학부모들 또한 청렴 안내 문자와 안내장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안내받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청렴 4대 전략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교육청, 경북 내 고등학교 진학율 '쑥쑥'

직업계고 학생 유입 증가세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입 전형 분석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해외 우수유학생 77명을 포함해 총 1561명에 달하며 타 시도로 유출된 학생은 376명으로 유입 학생 수가 유출의 4.2배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유입 학생 증가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생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경북교육의 원심력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유입 학생 1561명 중 마이스터고(유입 245명, 전체 마이스터고 모집 정원의 29.5%)와 특성화고(유입 726명, 특성화고 모집 정원의 17.6%)로 진학한 학생은 971명으로 직업계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한 유입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유입 학생 수가 증가했다. 전국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는 11%, 자사고는 14.3%의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를 시작하며 외국인 학생들이 경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유입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경북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타 시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북교육의 배움터로 유입되는 흐름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그 실현 가능성을 경북교육에서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세계의 중심인 따뜻한 경북교육은 꿈을 실현하려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주 건보, 흡연폐해 책임 규명 '한마음 한뜻'

제조판매사 손해배상청구 항소
지자체·37개 유관기관장 '앞장'
주낙영 시장 적극 지지 결의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시교육청, 보훈지청 등 경주 37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지역 유관기관장 회의(금성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보고하고 시장을 비롯한 참석한 모든 기관장들이 국민의 건강권 사수와 담배로 인한 흡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담배소송을 비롯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데 당연히 작은 힘이나마 함께해야 한다"며 참석기관장들과 힘찬 지지 결의를 선도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인삼공사(KT&G)와 외국계 담배제조유통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연간 4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폐암, 후두암으로 진료받은 3465명의 암환자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533억원에 대해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특히 지난 11차 항소심 변론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경험한 흡연의 폐해와 다양한 사례를 설명해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을 통해 국민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담배 제조판매사에게 사회적 책임과 기여노력을 촉구해 물질적·실질적인 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통해 전 국민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불길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 구한 '시민영웅'

경주소방, 김동현씨에 표창 수여
운전자·동승자 신속 구조해 귀감

경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문무대왕면 소재 문무대왕1터널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동현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동현씨는 사고 당시 터널 내에서 전기차가 벽면에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불길이 쉽사리 진압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미처 탈출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고 망설임 없이 운전석 문을 개방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후 조수석에서 들려오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을 듣고 동승자도 신속하게 구조해 냈다.

김동현씨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송인수 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동현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동현님의 숭고한 시민정신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제28회 영덕대게축제 손님맞이 준비 '꼼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캠페인
호객행위·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영덕군은 다가오는 제28회 영덕대게축제 기간 방문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구항 대게거리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영덕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개선된 호객행위 없는 강구항 대게거리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대게축제 기간 위생과 안전사고를 점검·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홍보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이다.

김광열 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대게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기간 대게거리 업주들과 함께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해 왔다"며 "영덕대게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봄철 산불예방 만전… 문경, 초동진화·전문성 함양 '집중'

산불대책본부·진화대원 훈련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나서

문경시 산불대책본부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을 맞아 산불의 초동진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일 산불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38명)이 영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기계화시스템, 드론 운영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고도화 전문 훈련이다.

산불대책본부는 봄철 대형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상주시와 대형헬기(3400L급)를 공동임차하고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차량(4대) 및 기계화시스템(4개 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불은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산불대책본부는 자체 드론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특별시책으로 고압철탑 내 AI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경시는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인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산불대책본부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 중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단은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파쇄운영단이 협업하고 있다. 읍면동 신청 및 방문을 통해 파쇄를 진행하며 파쇄기 임대도 함께 실시 하고 있다.

지성환 산림녹지과장은 "해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논밭태우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김천 대덕면, 효과적 화재 대응 체계 강화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 활용 훈련

김천시 대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산불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대형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공무원과 산불 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덕면복지회관 주차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의 주요 목적은 산불 진화 능력을 향상하고 기계화 장비의 실제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의 점검과 운용 방법을 익히며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동력펌프를 이용한 진화 용수 공급 방법에 대한 실전 교육이 강조됐다. 이러한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기 면장은 "실전 교육을 통해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대덕면의 산불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훈련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道, 전파력 높은 홍역·수두 집단감염 주의

백신접종·위생 수칙 준수 등 당부

경북도는 이달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홍역·수두 등의 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과 수두는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로 공기로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발진이나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감염 시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유의하기 위해 홍역과 수두가 유행하는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홍역,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예방접종 효과가 뛰어나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표준 접종 일정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4종(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중학교 입학생은 2종(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해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 시기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산91
 -분묘 기수: 무연분묘 14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5년 3월 12일 ~ 2025년 6월 9일)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안치기간 5년
6. 안 치 방 법: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안치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재단법인 영호공원)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배대지 (010-8506-98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1, 202동 2202호
9. 신고요령: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에 있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합니다.
10. 기타사항: 위 지번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공고인 : 배대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산57
 -분묘 기수: 무연분묘 8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5년 3월 12일 ~ 2025년 6월 9일)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안치기간 5년
6. 안 치 방 법: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안치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재단법인 영호공원)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최선호 (010-8506-98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1, 102동 402호
9. 신고요령: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에 있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합니다.
10. 기타사항: 위 지번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공고인 : 최선호

경주시, 소상공인·기업 성장 도약의 문 '활짝'

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TV 방송 홍보·제품 개발 도와
내달 공개 모집 후 사업 본격화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25년 경주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V 방송 홍보, 우수제품 개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통신판매업을 보유한 경주시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약 7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며 △TV 채널 및 SNS 홍보(8개 업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우수제품 공동 개발(5개 업체)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판로 지원(60개 업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동일한 사업을 통해 쇼핑몰 특별 기획전에서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만큼 올해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경북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업체 공개 모집과 선정을 거쳐 지원을 진행하며 내년 2월에는 정산 보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나눔 확산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자"

경주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12억원 후원금 약정식 가져

경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12억원 후원금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전성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주후원회장 및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후원금은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일시 지원을 비롯해 주거 개보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시설 지원, 인재 양성 아동 옹호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해마다 후원금 약정을 통해 총 100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노력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948년부터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28개국의 아동을 돕는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경주후원회'는 2017년 설립돼 지역 아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2025 APEC, 책임감 막중"… 제6기 경주 홍보자문위 출범

백재욱 위원장·위원 24명 위촉식
APEC 홍보·도시 위상 제고 모색

경주시는 지난 10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제6기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홍보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2년간 경주시 홍보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백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백재욱 신임 위원장은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명사 마을 인근 문화재보존 유적지에서 'APEC 클린데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APEC 클린데이'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경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낙영 시장은 "홍보자문위원회가 시정 홍보의 발전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시, 모두가 평등한 관광도시 조성 '잰걸음'

관광약자 안내센터 개관식 개최
무장애 관광코스 지속적인 개발

경주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 관광약자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11일 신라대종 앞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관광협회 회원, 지역주민 등이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곤란함 없이 경주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기원했다.

관광약자 안내센터는 3년간 5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했으며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 점자 등 편의시설, 저상버스 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안내 등의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관광약자 안내센터 개관을 계기로 무장애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동 약자들의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관광약자 안내센터 개관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한수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일반·별도전형 총 202명 선발
27일 오후 3시까지 누리집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2일부터 '2025년도 제1차 신입사원(대졸 수준)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선발인원은 202명으로 일반전형(182명)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전형(보훈특별 10명, 사회형평 10명)으로 나눠 채용한다.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25명 이상 정규직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총 433명의 채용 실적 가운데 382명을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누리집 www.khnp.co.kr/recruit)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市, 아동 맞춤형 복지망 강화 '탄탄히'

내달 30일까지 드림스타트 접수

경주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2025년도 드림스타트'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초기 상담과 양육환경을 조사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지·정서·행동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 및 놀이 지원, 부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어린이집,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선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발굴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상투데이 창간 11주년

고준위특별법 제정,
세대를 잇는 안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고준위특별법 통과,**
책임 있는 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깊이, 더 안전하게 세대를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국가방폐물전담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찰떡궁합 '봄 미나리·삼겹살' 맛보러 오세요!

시, 14~16일 미삼 직거래 장터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구매
바로 먹을 수 있는 체험장 운영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두류정수장에서 미나리 홍수 출하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향긋한 미나리와 찰떡궁합인 고소한 삼겹살을 함께 판매하는 '미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지역의 '봄맛 전령사'로 사랑받아 온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삼겹살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로써 시는 산지 소비급감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 재배 농가를 돕고 시민들에게 봄철 맞춤형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간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진행한다.

특히 미나리와 삼겹살을 직접 구입한 뒤 바로 먹을 수 있는 '무료 미삼 체험장'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아삭하고 향긋한 봄철의 신선한 먹거리를 소개한다.

또한 고물가에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한 국내산 과일 등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청, 구·군청,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나리와 삼겹살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구로 앱의 로컬푸드 대구장터(배송지역 : 동구, 북구, 수성구 일대)에서 미삼세트 무료배송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미나리는 청정한 동구 팔공산 지역과 달성군 화원·가창 지역에서 생산된 미나리로(1만원/800g) 공산농협과 화원농협에서 제공하며 미나리와 찰떡궁합인 삼겹살은(1만원/500g)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한 한돈으로 대구경북양돈농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나리와 양돈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신선한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삼겹살을 즐기며 봄의 기운을 듬뿍 받고 건강해 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군,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만들기 박차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24억 확보'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 외 1개

달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단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서 국비 24억원을 확보하며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서 달성군은 4개 분야 중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비 10억6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6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장을 개선하고 오는 2028년 5월까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내 도로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구지농공단지 인근이며 총사업비는 28억6000만원이다. 군은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요구율이 가장 높았던 산업단지 인근 △주도로와 녹지공간 정비 △주차장 증설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무환경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에 나선다.

사업비로 6억원이 투입되며 군은 구지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체감율이 높은 공장 외부 도색 및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개보수 등을 지원해 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유입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같은 공모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분야에 선정돼 추진 중인 '구지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이번 두 사업을 연계해 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대구시, 직원 혁신모임 '영솔루션' 발대… 소통 창구 '활짝'

행정·보건 등 다양한 직렬 재구성
불필요 관행·권위적 조직문화 타파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신공항 건설, 광역 최초 채용 거주요건 폐지,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대구혁신 100+1 달성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 왔으며 시정 전반 대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혁신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대구발(發) 혁신의 주춧돌이 되는 직원 혁신모임 '영솔루션'이 재구성돼 11일 산격청사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영솔루션은 올해 행정, 보건, 소방 등 다양한 직렬로 새롭게 구성됐다.

'영솔루션'은 대구시의 조직문화를 새로 고치기 위해 갑질,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불필요한 관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정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직원들의 참석으로 시작된 발대식에 이어 올해 첫 회의에서는 영솔루션의 역할,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 외에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주요 간부와의 대화시간 등 소통과 혁신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다짐했다.

영솔루션은 온라인 서명부 이용과 같은 업무 전자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비상근무자 등 업무특성상 조기출근 하는 직원들과 소통·공감 인터뷰를 진행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혁신을 위한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공직 사회 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어린이놀이시설 '3단계 안전점검' 실시

전문가와 함께 15개소 살펴

대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어린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개학기를 맞아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3372개소를 대상으로 3단계(자체점검→표본점검→민·관 합동점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관리주체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 구·군에 점검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구·군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시설(약 680개소)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그 후 대구시가 주관해 구·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학교 주변·주택가의 노후 시설, 점검 미이행 시설,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원 내 놀이시설 등 15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수리·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기한 내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노는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소보면 한우협회, 정부 정책 적극 활용해 산업 경쟁력 ⬆

정기총회 개최… 자가 조사료 생산 통한 경영비 부담 절감 도모

군위군 소보면 한우협회는 지난 10일 군위농협 소보지점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5년도 정기총회에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소보면장과 군위축협·소보농협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군위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및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절차와 벼 대체작물 중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하계조사료(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방안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홍동식 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가 조사료 생산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한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계 조사료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에도 적극 참여하는 소보면 한우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하계 조사료(옥수수) 재배지 확대와 정부 지원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전화 한 통이면 '영양군민 일상 불편 해결 OK'

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지난해 2633건 서비스 '큰 호응'
문고리 교체 등 어르신에 도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우뚝'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양군은 경북 북부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형성된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더불어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창구의 필요성이 간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어르신 맞춤형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복잡한 서류나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통해 노인들의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하며 이러한 방문으로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첫해에는 1100여건에 불과하던 서비스는 실적이 해마다 증가해 2024년 2633건의 생활 불편을 처리했다. 전등 교체, 문고리 교체 같은 누군가에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르신들에게는 군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발이 돼 주는 전동스쿠터 수리와 여름철 방충망 교체, 겨울철 단열 에어캡 부착 등으로 이어졌으며 군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오지라는 지역 특성상 보일러 수리, 변기 수리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엔 지역 내 수리업체가 빈약하고 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이 컸다.

또 고향에 부모님을 두고 타지의 일터를 찾아 떠난 자식들은 가끔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바뀐 방충망을 보고는 마음속 미안함을 덜어놓는다고 한다.

마을주민 김모씨(76·여)는 "전화 한 통으로 오며 가며 챙겨주는 마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기 각층의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한 영양의 보살핌 프로젝트는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혹은 노인들의 생활밀착형 복지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나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전화 한 통이면 방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 가정은 민원처리에 발생하는 재료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성열 기자zopr94@hanmail.net

봉화군 "산불 ZERO"… 신속 대응 나선다

대책회의서 협력 방안 논의
신고 통보·급수 공급 등 집중

봉화군은 지난 10일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배진태 부군수의 주재로 봉화소방서, 봉화경찰서, 119 산불특수대응단, 봉화교육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한전, 봉화군산림조합 등 여러 유관기관과 봉화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주요 실·과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잠정)에 대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통보, 급수 공급, 교통 및 주민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송전선로 화재 예방과 일몰 및 일출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행위의 근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산불은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맡은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협조체계를 확고히 해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 청년이 꿈 펼치는 '농공단지' 만들기

산자부 '농공단지 고도화 패키지' 선정
86억 투입, 2029년까지 문화센터 완공

의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농공단지 고도화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원 포함 총 사업비 8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1991년에 준공돼 30년을 넘긴 다인농공단지를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 86억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센터 신축 및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노후화된 산업기반을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군은 실수요 파악을 위해 다인농공단지 입주기업인·근로자, 지역주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사업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문화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 센터 내 북카페, 편의점 등 편의공간과 헬스장, 멀티미디어홀 등 문화공간, 공유오피스, 기업컨설팅룸 등 기업지원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인농공단지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 생활 서비스를 확충해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22년에 선정된 의성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지역 내 소재한 4개 농공단지 모두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농공단지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의 도약과 성장을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돼 농가 외 소득 증대를 가져 온 농공단지의 취지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농공단지를 만들어 가는 데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 청소차 도입 '시가지 환경 쾌적하게'

친환경 전기 노면차 2대 운행
주택가·소형 이면도로 유리
살수차량·낙엽 정리 활용도

안동시는 이달부터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2대를 배치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민선8기 최대 역점사업인 클린시티 안동 만들기에 방점을 찍을 이번 청소차 도입으로 시가지 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변모할 전망이다.

우선 중구동과 강남동에 차량을 시범 배치하고 차량 운전은 소속 환경공무관이 맡는다.

특히 중구동 구시장(구도심) 및 강변도로 청소, 강남동 시민운동장 주변 낙엽 제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청소차는 기존의 노면 청소차에 비해 크기가 작아 대형 청소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주택가 2차로 및 소형 이면도로 청소에 유리하고 여름에는 폭염 대비 살수차량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가을에는 낙엽 정리에도 유리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100%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차량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 도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청송,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 '뚝'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시행

청송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구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 2명 이상이 경북도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2자녀 가구는 5만원, 3자녀 가구는 7만원, 4자녀 이상 가구는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 29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www.happybu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온라인 쿠폰이 발급되며, 해당 쿠폰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및 '사이소' 내 '청송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영주,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를 이달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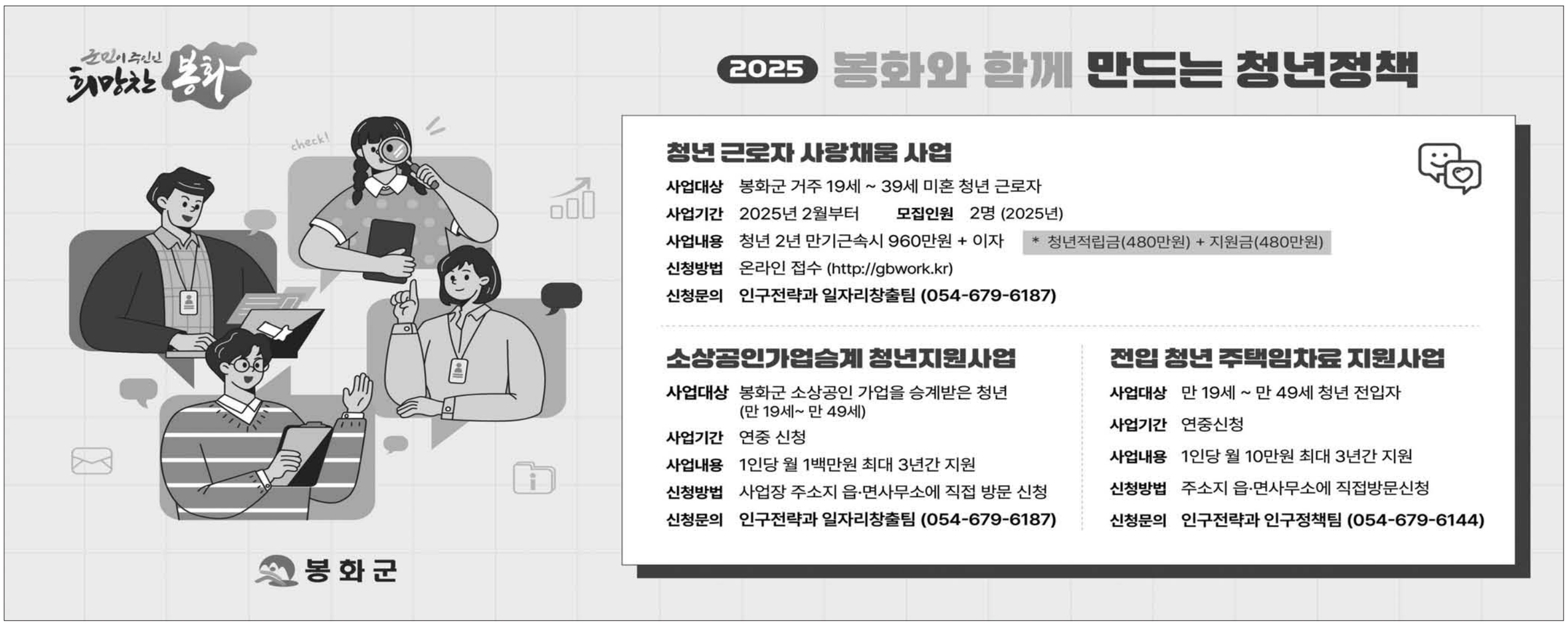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됐으며 올해는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차량의 제원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돼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구미 '선수 편의 중심' 亞육상대회 준비 만반

선수촌 내 현장 필수 사항 점검
숙박·식사·수송·안전관리 등
불편 제로·최고 환경 제공 '힘'

구미시가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참가 선수단 맞이를 위한 선수촌 현장 점검을 11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수들의 최적의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 식사, 수송, 안전관리, 주변환경 등 필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45개국에서 약 1200명의 선수단 및 임원 등이 참가한다. 그중 700여명의 선수단은 구미 지역 내 라마다 호텔 등을 숙소로 사용하며 대회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된다.

시는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객실 환경 및 안전성 △식사 제공 시스템 △셔틀버스 운영 계획 △응급 상황 대비 비상체계 △선수촌 주변 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선수촌으로 운영될 구미 인동동 라마다 호텔 일대는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구미시는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김천시, 시민 걷기왕 선발

모바일 대항전 참가자 접수 중
워크온 앱 설치·가입 후 등록

김천시는 읍면동별 걷기왕 선발을 위한 모바일 걷기왕 대항전을 오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항전은 주민들의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워크온 앱을 활용해 진행된다.

'우리 동네 걷기왕'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앱을 통해 손쉽게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워크온 참여자 기준으로 22개 읍면동별로 그룹을 나눠 걷기왕을 차등 비율로 선정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평균 걸음 수가 높은 상위 70명의 참여자와 우수 지역 1곳의 우수 참여자 10명을 포함한 총 80명에게는 홍보 물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 후 보건소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김천시 '우리 동네 걷기왕' 그룹별 대항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관련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64)로 하면 된다.

손중일 과장은 "김천시 주민들이 걷기 실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걷기 실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고령,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대상 모집

24일까지 방문·이메일 신청

고령군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상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내달부터 유료

상주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주차타워)이 오는 4월부터 전면 유료화 운영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 제공과 도심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상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주차타워)은 지난 2023년 4월 준공 이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오다 2년여 만에 유료로 전환된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이며 요금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초 1시간 이내는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 1일(7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6000원이 부과되며 그 외 시간은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무인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므로 시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주차 유도등 설치, 자동(비대면) 감면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편의 사항을 추가하고 점검 및 시험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왜관 호떡장인 차태일 '인생역전 주인공'

"대경선 타고 맛보러들 오세요"
IMF 시절 38억 부도 딛고 재기
전국 각지 150명 제자 둔 달인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후문길. 기름 냄새가 퍼지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다.

기다림의 끝에는 '웰빙왕호떡'이 있다. 그리고 그 철판 앞에는 30년 세월을 버틴 사내 차태일(61) 사장이 서 있다.

그의 시작은 호떡이 아니었다.

IMF 이전 그는 철강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어음 38억원이 부도나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고… 바람처럼 떠돌았죠".

그러던 길 위에서 호떡을 만났다. 철판 위에서 부풀어 오르는 반죽처럼 차 사장은 호떡 한 장으로 다시 일어섰다.

현재 그는 전국 150명의 제자를 둔 호떡 달인이다. 대구, 대전, 울산, 강원도 양구, 전주 등 전국에서 150명이 그의 제자가 됐다. "돈만 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내 가락이 나올 때까지, 내 손맛을 익힐 때까지…".

기름 온도 맞추는 법, 반죽 숙성 시간, 소 넣는 비율까지. 그는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을 몸에 새길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로라도 먹고살게 해주고 싶어요".

이 집 호떡이 특별한 이유는 기름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름은 절대 다시 안 씁니다. 매일 아침 새 기름으로 시작합니다".

재료를 절대 이월하지 않는다.

장사가 끝나면 청소하는 이들이나 단골들에게 기꺼이 나눈다. "장사는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아야 다음 날 문 열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철학이 호떡 맛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

주말이면 대구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차 사장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 대경선이 개통됐으니 이제는 기차 타고 오는 손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대경선 타고 왜관역에 내리면 이곳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기차 타고 호떡 한 장 먹으러 오는 재미, 괜찮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김재욱 군수도 이곳을 직접 찾아 차 사장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차태일 사장을 한참 바라보던 김 군수는 호떡을 받아 들고 한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식감과 속 가득 찬 달콤한 소의 조화에 미소가 번졌다.

김 군수는 차 사장을 바라보며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정직한 손맛으로 왜관의 명물이 된 웰빙왕호떡은 우리 칠곡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대경선과 U자형관광벨트를 연계해 더 많은 분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칠곡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름 솥 앞에 선 30년 세월. 오늘도 차태일 사장은 새 기름을 붓고 기름 온도가 딱 맞기를 기다린다.

정성스럽게 반죽을 빚는 그 손끝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장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김하수 군수 "군민과 희망찬 청도 만들겠다"

주민참여형 타운홀미팅 진행
운문면부터 한 달간 순회 집중
관광·농업 분야 등 의견 경청
정책화 위해 단계별 절차 추진

청도군은 전국 군(郡) 단위 최초로 전 읍면을 순회하는주민참여형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청도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달 6일 운문면을 시작으로 이달 7일 각남면까지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가족 중심의 의식을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 선진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읍면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의제를 논의해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읍면별 매회 주민 150~200여명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 군의 행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도군의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차로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읍면별 2차 주민 간담회를 거쳐 최종 주제를 확정했다.

각 읍면에서 직접 논의해 선정된 주제는 △농업과 관광 융합으로 농가경제 및 관광객 방문 UP △청도읍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도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연계 농산업 발전 방안 등 6개 분야 총 18건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총 82건으로 분야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운문사 자연휴식년 중단 △호산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 △동곡시장 먹거리촌 조성 △오례산성 복원 및 등산로 정비 △헐티재 등산로 주차장 신설 △죽바위 관광객 편의·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풍각시장 먹거리골목 및 전통 먹거리 브랜드화 △로컬푸드 매장 이용객 대상 관광지 할인쿠폰 제공 △청도읍성 먹거리 푸드트럭 운영 등 총 20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오지 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 충족 △성곡지 주변 마을 환경개선 △팔조령 구길 이정표 및 관광 안내판 설치 등 총 15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농업·산업 분야에서는 △경관보전 직불금 도입 경관단지 조성 △납품 농산물 다변화를 위한 산나물류 재배 시범단지 조성 △자연드림파크 납품 계약을 통한 지역 농산물 대량 재배 △감 재배 분야의 농업 대전환 추진 △마늘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등 총 13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환경·안전 및 기타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대중교통 및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설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소통공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8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의견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행정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행정과 주민 간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은 청도군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울릉 특산물 가공제품 시음·시식회 '성황'

주민에 마가목와인 3종 선봬 '호평'

울릉군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울릉도 특산물 가공제품 시음·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가공업체대표, 울릉군생활개선회원, 가공산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제품 전시와 제품 연구개발과정 설명, 제품 시음·시식을 통한 평가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에 착수, 2024년까지 6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마가목와인 등 8개 품목의 가공제품을 민간에 기술이전을 완료했으며 민간업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 용출수와 미네랄이 많은 해양심층수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인 우산고로쇠수액을 활용한 마가목 열매 와인 3종을 추가로 개발해 시음회를 가졌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명품울릉에 기술이전한 가정간편식(HMR) 물엉겅퀴해장국 시식행사와 더불어 울릉도 부지갱이 등 산채 상품화 및 건조과정에서 '해조칼슘' 처리로 기존 검은색에서 산채 고유의 푸른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건산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마가목와인 시음 후 각각 독특한 향을 내는 와인 3종의 맛에 감탄을 자아냈다. 또 가공제품 연구개발, 교육 등 울릉도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박기찬 농업연구사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 농업은 여러 모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덕분에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울릉군의 가공산업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김광열 영덕군수, 도로개량 사업 성공적 추진 '동분서주'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교통량 분산 위해 조기 착공 건의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0일 지역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형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을 만나 사업의 조기 착공과 개통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건의한 사항은 △국지도 20호선(강구~축산) 도로개량 사업 △국지도 69호선(달산~죽장간) 도로개설 사업 △국도 34호선(안동~영덕) 도로개량 사업 등이다.

특히 김 군수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와 올해 초 완전히 개통한 동해중부선 철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국지도 20호선 해안변(강구~축산)의 관광지와 내륙 구간인 국지도 69호선(달산~죽장간) 구간에 유입됨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개량 사업의 조기 착공을 부산청에 당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덕군의 지역 현안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한울본부, 더 재밌고 쉽게 '원자력' 알리기

국립해양과학관 SMR 전시 개관
2개 관 구성, 체험·게임 공간 조성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국립해양과학관에 설치한 'SMR 기반의 미래해저탄소중립도시(U-SSNC, Undersea SMR Smart Net-Zero City) 전시관'을 개관하고 기념행사를 시행했다.

전시물은 아나몰픽 영상 기술을 활용해 SMR에 기반한 미래에너지가 해저도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동감있게 보여주며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SMR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시관은 'SMR LAB'과 'U-SSNC COMPLEX'로 구성됐고 SMR LAB(SMR 연구소)에서는 미래 해저도시에서 SMR이 하는 역할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며 U-SSNC COMPLEX(SMR에 기반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에서는 아나운서 체험, SMR 퍼즐 게임 등의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세용(사진) 본부장은 "U-SSNC 전시관을 통해 어린이들이 SMR에 친근하게 다가갈 기회를 줄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한울에너지팜에서도 원자력을 재미있는 과학의 한 영역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최종 선정 '쾌거'

포항시가 11일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돼 3년간 연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직업계고, 대학,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업계고 학과 개편으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취업 후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점 이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교육부, 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협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내 우수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취업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하나자동차매매
대표 박 원 섭
경주시 동단로 108(용강동)
☎ 054-749-5858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로 날갯짓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개최
평생학습·농업대전환과 연계
10개 클러스터 도출·전략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청도군은 11일 간부 공무원,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TF추진단, 인문사회연구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의 기본 방향은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를 넘어 3대 비전인 '청도 평생학습 행복도시' 및 '농업대전환'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해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계·실행의 기초 단위인 10개의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를 도출해 단계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단계별 추진 과제는 △자원 및 주체 발굴·주목을 통한 자산화 △지역 문화 주체 양성 및 문화 콘텐츠·일거리 창출을 통한 문화 동력 마련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브랜딩 및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문화·관광 비즈니스를 다각화해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의 주요 활동으로는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TF추진단 구성 및 운영, 각북면 주민 참여 라운드 테이블 개최 및 TF추진단 토론회의 개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타 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야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관광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문화와 예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를 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문화·예술·관광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청도군이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힐링과 감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봉화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사업 준비 '착착'

다양성 기반 등 4가지 운영안 제시
30억 투입해 다양한 프로그램 예정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권성연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 현황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봉화교육지원청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살기 좋은 글로컬 이주 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운영 전략으로는 공존 사회 기반 조성, 다양성 기반 보편 교육, 강점 극대화 맞춤 교육, 이주 사회 대비 포용적 지원이 제시됐다.

올해는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봉화형 책임 배분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맞춤형 기초기본 학력 보장 사업 확대, 봉화 생태문화 시드볼트 구축, 다중언어 역량 강화 사업 및 글로벌 교육 지원, 미래 과학·체육 인재 발굴 육성, 봉화(Fine) 진로 누리 캠프 등이 포함된다.

이영록 교육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봉화교육발전특구사업의 기반이 잘 정착됐으며 올해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년 차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 봉화가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군청과 함께 최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다문화 학생 한국어 역량 집중 지원 '눈길'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입소식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는 경주 소재 각급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센터는 이날 예비교육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생활안전집중 지도주간', '한국어사용규칙 10훈', 센터 내에서의 '스마일 예절'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센터는 올해부터 기초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심화반을 개설해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적응-진로-미래의 꿈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체계화했다.

오후 수업에서는 '체험하는 한국어, 배워가는 한국문화'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예술과 정서를 지원하는 기반에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접목해 8개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입소식을 마친 학생들은 간단한 기념촬영 후에 임시로 편성된 반으로 돌아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했다.

김시용 센터장은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수준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글로벌 K-인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울진군, 인사하는 '공직 문화 만들기'… 부서 간 소통 강화

월 2회 '먼저 인사합시데이' 시행
관광객 1000만명 유치하기 '박차'
직원들에 적극적 참여·홍보 당부

울진군이 공직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부서 왔네~ 먼저 인사합시데이(day)'를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되며 부서 간 아침 인사를 통해 직원 상호 소통을 촉진한다.

첫 캠페인은 11일 정책홍보실이 전실과를 순회하며 타 부서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먼저 인사하기'의 실행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군은 올해까지 '먼저 인사하기'를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1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먼저 인사하기 실천 캠페인', '먼저 인사하기 직원 참여방송', '인사왕 선발', '대중교통 서비스 인사왕 및 베스트 친절업소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군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타 부서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부서 간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 문화 조성과 군민 전체가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예천, 정보화마을 활성화 '군민 소득 제고'

회의서 발전안·플랫폼 입점 논의

예천군은 11일 지역 내 3개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정보화마을 사업별 추진 방향 △경북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안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을 통한 효과적인 농산물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 대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인 '사이소' 입점을 통한 판매 전략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판매 상품의 경쟁력 강화, 온라인 마케팅 전략, 품질 관리 및 브랜드화, 고객만족 서비스 등 온라인 판매 실적 제고를 통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기정 홍보소통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보화마을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새 단장 마쳐

에코정글랜드·전시관 등 갖춰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 지난 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 재개관식을 했다.

탄소제로교육관은 구미도시공사에서 운영,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에코정글랜드, 탄소중립 실천 전시관 등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조성, 방문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생활실천형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재웅 공사 사장은 "탄소제로교육관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의 탄소저감 가치관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에코정글랜드 및 전시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연령대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GYEONGSANG TODAY
소개

경상투데이는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고 독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언론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창간되었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바른 소리와 사실만은 전해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경상투데이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신문까지 갖춘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선구자 정신으로 실시간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국민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생생한 지구촌 소식을 전달하여 독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므로 경상투데이가 우리사회의 언론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문구독&광고문의 | gst3000@naver.com | 054-748-0070

가정친화기업 서한, 임직원 복지제도 '눈길'

대구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선정
임산부 배려용 간이침대 배치
다목적·다이닝 공간 등 조성해

㈜서한이 임직원 복지향상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한은 11일 (재)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임직원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지원을 통해 임직원을 위한 휴게공간과 회의실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기업별 맞춤형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친화기업은 대구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브랜드로 고용 실적 및 근무환경이 우수한 지역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서한은 지난 2016년부터 대구시로부터 고용친화기업으로 인증받고 있다.

㈜서한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해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가정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휴게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 복지향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휴게실은 실별로 간이침대를 배치해 임산부 및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은 물론 일과시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이닝 공간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식단을 제공하며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도 마련됐다.

아직 운영 초기지만 벌써 직원 휴게공간을 활용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직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그동안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준 전무이사는 "㈜서한은 직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직원과 그 가족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HS화성, 폐콘크리트 활용 디퓨저 제품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영예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세계적 권위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HS 콘크리트 디퓨저'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HS화성은 지난해 출품 첫해에 3건의 디자인 수상에 이어 올해도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중견 건설사 최초로 2년 연속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HS화성의 디자인 경쟁력과 상품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HS 콘크리트 디퓨저'는 HS화성의 새로운 사명과 도전 정신을 반영한 제품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향기 굿즈 브랜드 '지오아트굿즈'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해당 디퓨저에 담긴 향 '담대'는 상쾌한 시트러스와 묵직한 우디 향의 조합으로 웅장한 규모감과 신뢰감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업사이클링한 디퓨저 홀더와 폐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해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실현했다.

박진필 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번 수상은 HS화성이 디자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 콘크리트 디퓨저는 한정판으로 제작됐으며 이번 디자인 본상 수상을 기념해 HS화성은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참여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봉화군, 베트남 SITTO그룹과 협약… 축산 경쟁력 강화 매진

축분유기질비료 수출계약 체결
분기당 500t 이상 납품 약속 담아

봉화군이 베트남 SITTO그룹과 축분유기질비료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7일 베트남 호찌민사무소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분기당 500t 이상의 유기질비료 수출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봉화군과 경북도, 늘푸른㈜와 SITTO그룹 간의 협약을 포함한다.

SITTO그룹은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베트남 내 두리안 등 고품질 과일의 수출 증가에 따라 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ITTO그룹은 봉화군과의 계약을 통해 고품질의 축분유기질비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축분에 의한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봉화군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축분유기질비료 수출 선진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 계약은 단순한 물량의 공급을 넘어 경북도의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SITTO그룹의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봉화군의 축분유기질비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봉화군은 축분 처리와 유기질비료 생산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지역 농가와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시, 건설공사 조기 발주 '268억 규모'

도로사업 포함 281지구 추진
숙원사업 등 상반기 준공 목표

문경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사업 29지구, 농업기반사업 33지구, 주민숙원사업 219지구 등에 268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달 26일 자로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도로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지구 10억원, 지역개발지원사업 1지구 8억원, 시도정비사업 8지구 34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지구 25억원, 도로유지보수 9지구 3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1지구 6억원 등 도로사업 29지구에 대해 115억원이며 △농업기반사업으로는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1지구 8억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29지구 26억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3지구 4억원 등 농업기반사업 33지구에 대해 38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숙원사업 150지구 80억원, 편익사업 13지구 2억원, 생활환경개선사업 49지구 20억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7지구 13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9지구에 대해 115억원이다.

또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내 주요사업으로 농암 화산~사현 2차로 개량사업 427억원, 국도59호선 문경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119억원, 지방도923호선 문경~산북간 도로건설공사 290억원 등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문경시에서 조기 발주된 건설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특히 농업기반사업은 농번기 전 사업완료를 통해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한수원-KOTRA, 청정에너지 사업 확대 '힘'

해외사업 추진·기업 진출 등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0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KOTRA와 국내외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해외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 협업 △국내 청정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상호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각각의 사업영역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왔던 것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OTRA와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주호 사장은 "한수원은 원자력을 비롯한 각종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KOTRA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문경시청씨름단, 전국대회 '세 번째 황소' 번쩍

55회 회장기 男일반부 단체전 우승

문경시는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는 남자일반부 체급별 개인전 및 단체전 4강 및 결승 경기가 진행됐으며 이날 문경시청씨름단은 남자일반부 단체전 4강에서 태안군청을 4대 1로 누르며 손쉽게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우승 후보인 영월군청과 황소 트로피를 놓고 한판 승부가 이어졌다.

임성권(경장급), 홍승찬(소장급) 선수가 출전해 승리를 가져오며 2대 0으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문기택(청장급) 선수가 패해 승부는 2대 1로 영월군청씨름단의 추격이 시작됐다. 이어 신현준(용장급) 선수가 멋진 십자걸이를 성공시키며 영월군청씨름단의 추격의 불씨를 잠재웠다.

황성희(용사급) 선수가 패하고 역사급 김종선 선수가 출전해 경기 시간을 모두 소화하는 끈질긴 경기 운영을 보여줌으로써 우승을 확정짓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를 통해 문경시청씨름단은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해 우승기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

개인전에서는 홍승찬(소장급) 1위, 신현준(용장급) 1위, 황성희·김준석(용사급) 3위, 김종선(역사급) 3위에 입상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씨름단임을 증명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영천교육청, 초등 신규 교사 임명식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초등 신규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장모 신규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하니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소명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부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봉자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바람직한 자세로 교직에 임하고 항상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의지하고 노력해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경주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위해 힘쓰겠다"

최국호 북경주교육발전위원장 기업 후원으로 중고등생 장학금

북경주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중·고등학생 73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북경주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국호 위원장을 비롯해 황훈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장학금 기탁 기업 관계자, 장학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북경주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장학기금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은 ㈜녹색환경, ㈜에코비트에너지경주, ㈜퓨릿 등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최국호 위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훈 센터장은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기업들께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비전과 목표를 세워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고령, 의료 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고령군은 의료취약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대가야읍 외 7개 면 30개소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연계된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사업'(마을주치의사업)의 대상자인 의료취약마을 주민에게는 1개소당 주 1회, 총 8회 차로 운영되며 건강증진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건강체조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생활실천교육에는 영양교육, 걷기교육 및 걷기 앱 워크온 등록,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금연·절주교육, 구강보건교육이 포함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의성 안사면, 예천 지보면과 이웃사촌 MOU

의성군 안사면이 예천군 지보면과 지난 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이웃사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 간 유적지 방문, 축제 견학을 통한 문화 교류, 교차 및 릴레이 기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과 공동 발전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에 뜻을 모았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성주 선남면, 찾아가는 빨래방 '쾌적함 UP'

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0일 취곡2리 방아실에서 올해 첫 '별고을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했다.

이번 운영은 많은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동 정

읍면동장회의 주재·지역현안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은 12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해 각종 지역현안들을 논의한다.

경북개발公 공공임대주택사업 MOU

권기창 안동시장은 12일 오후 3시 10분 웅부관에서 경북도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제로타리3630지구 12지역 기탁식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후 3시부터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서 열리는 국제로타리 3630지구 12지역 기탁식에 참석한다.

새영천 알림이단 발대·위촉장 수여

최기문 영천시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5년 새영천 알림이단 발대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2025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특강

윤경희 청송군수는 12일 오후 2시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특강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한다.

상주 이안면, 어르신 노래교실 활짝

상주시 이안면은 지난 8일 안룡1리 선동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청춘 노래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3개월간 금민희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우고 함께 합창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안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문화·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경상투데이창간 11주년

청년이 오고, 가족이 머무는 도시 영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영천시에 전입(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하여 거주 및 주민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9~45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 **지원규모** : 50가구(이사비용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사 업 비** : 25,000천원
-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내용** : 이사(최대 30만원) 및 중개보수(최대 20만원)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 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주소지를 영천시로 출생 신고한 산모
  ※ 주민등록기간 6개월 경과 후 지급
- **지원내용**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현금 사후정산)
  ※ 단태아·다태아 동일 지원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사 용 처** :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876)

영천시

윤태영 71대 영주경찰서장 취임

영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윤태영 총경(57·사진)이 제71대 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윤태영 신임 서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하며 지역 현장의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윤태영 서장은 "지역사회와 협업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 질서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송 출신인 윤태영 신임 서장은 경찰대학교 5기로 임관해 강원청 수사과장, 홍천경찰서장, 춘천경찰서장,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영주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음식의거리,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안동시는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안동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중구동 원도심에 위치한 맛집이 밀집된 음식 특화 거리다.

안동음식의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13개 점포(면적 1만695㎡)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안문기 62대 대구달성경찰서장 취임

안문기(58·총경·사진) 전 대구청 홍보담당관이 지난 10일 제62대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안문기 서장은 취임사에서 △첫째 범죄예방과 검거라는 경찰 기본업무에 충실하기 △둘째 솔선수범하는 관리자의 역할 △셋째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자부심이 넘치는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를 당부했다.

또한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나면 반가운 동료와 선·후배, 어려울 때 함께 도우며 즐거울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달성경찰을 만들어 가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하며 위기에 강한 조직이 될 것과 매사에 정성을 다해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안문기 서장은 예천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경찰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입문한 후 상주경찰서장, 경북청 경무기획과장, 영주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문경, 인재 육성 기부 물결 '넘실'

(재)문경시장학회는 지난 10일 점촌3동 새마을회와 라온봉사단에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촌3동 새마을회는 문경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점촌3동 새마을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지역 학생들을 후원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봉사, 제초작업 등 다방면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점촌3동 새마을회는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현재까지 시장학회에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

라온봉사단에서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역 봉사에 뜻이 있는 학교어머니회 전·현직 회장이 모여 지역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라온봉사단은 이날 첫 장학금 기탁을 기점으로 꾸준히 시장학회 장학사업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현국 이사장은 "문경시장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문경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경주 노인회, 새 도전과 배움의 열정 '빛나'

41기 노인대학 230명 입학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11일 웨딩파티엘에서 제41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윤정수 노인대학장,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신입생 등 250여명이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다.

230명이 입학한 이번 노인대학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4회 생활 속의 건강관리, 생활과 세금 등 총 60개 과정의 다양하고 실용적인 강좌를 운영한다.

노인대학은 지난 1982년 개설된 이래 지역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다양한 교양 강좌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주낙영 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란다"라며 "노인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쌓은 지식을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성주 금수강산면 파크골프회 월례회

성주군 금수강산면 파크골프회는 지난 10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호 파크골프장에서 월례회를 갖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파크골프시합도 함께 펼쳤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회칙에 대한 안내와 파크골프장 잔디생육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휴장 안내를 했으며 팀별 파크골프 시합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파크골프 교실 이후 회원들 간 실력이 늘어났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최석태 회장은 "지난해 꿈에 그리던 파크골프장이 생긴 이후 파크골프회 발전과 함께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명품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준 성주군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안동, 성현 추모·덕 기리는 '춘계 석전대제'

지난 9일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 예안향교와 송천동 소재 안동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한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석전대제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5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등의 순으로 거행됐다.

예안향교에서 열리는 석전대제에는 권기창 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제사를 올리고 뜻을 기렸으며 안동향교에서는 이충섭 전교가 초헌관을 맡아 진행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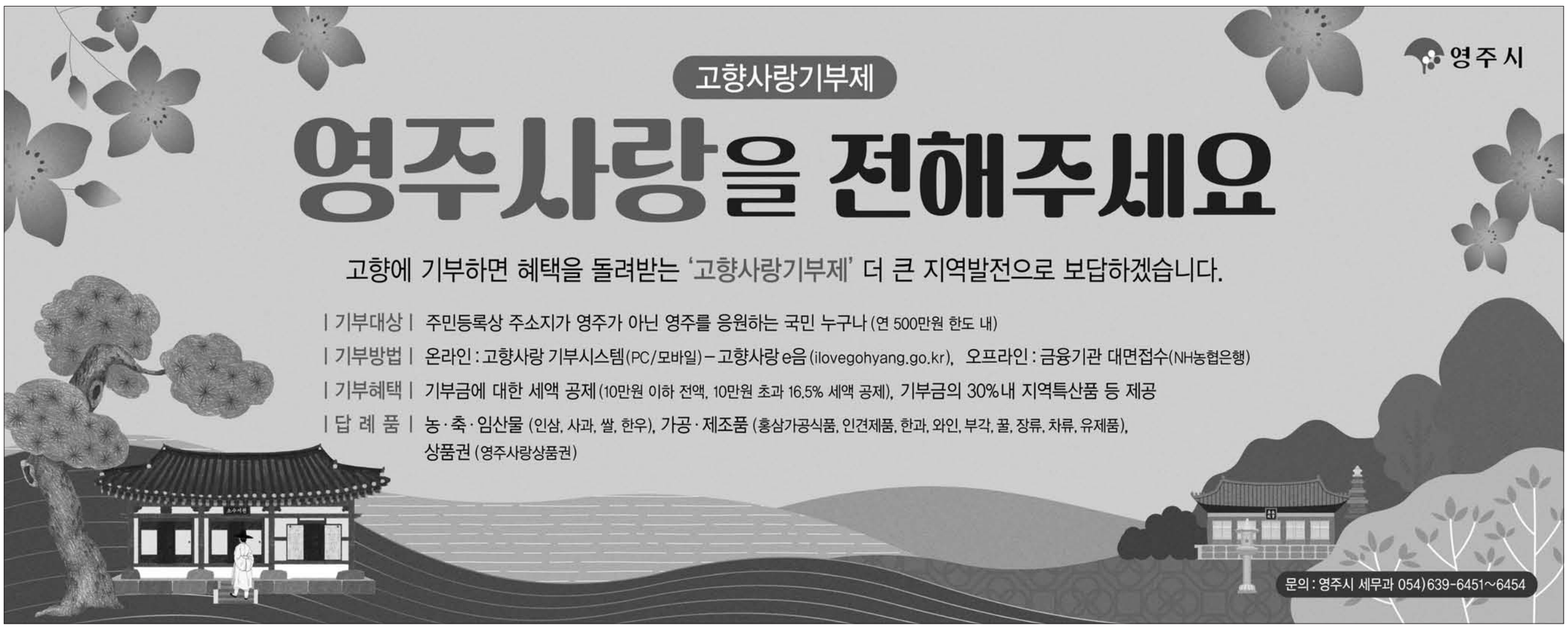
화동면 새마을회, 따뜻한 나눔 문화 '앞장'

상주시 화동면 새마을남녀지도자는 지난 10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화동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시설을 수리해 줌으로써 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사업이다.

화동면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1가구를 선정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눠 줄 예정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섬세한 피아노 독주, 베토벤의 낭만 재조명

대구콘서트하우스, 오늘 오후 7시 30분 김안나 피아노 리사이틀
후반기 작품 중심으로 감성적 깊이·음악적 표현 담긴 명곡 연주

대구콘서트하우스는 '클래식 ON'(이하 클래식 온)의 3월 프로그램으로 '김안나 피아노 리사이틀'을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선보인다.

'클래식 온'은 매월 2회 성악, 앙상블, 작곡, 독주 등 클래식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대표 기획 공연이다.

이달에는 피아니스트 김안나와 소프라노 유소영이 주인공으로 나선다.

12일 공연을 펼치는 피아니스트 김안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 후 미국으로 넘어가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Ellen Mack, Boris Slutsky에게 사사 받으면서 최고 연주자상과 최고 반주자상을 수상했고 이후 미국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개최하며 국제적으로 입지를 넓혔다.

그녀는 귀국 후 대구시립교향악단 협연을 비롯한 실내악 연주, 독주회 등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낭만성-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 아래 베토벤의 후반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가 음악을 통해 표현한 감성적 깊이와 낭만성을 조명한다.

김안나와 함께 지역 음악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료 교수 피아니스트 여은영(영남대학교 피아노과 교수)과 첼리스트 송희송(대구가톨릭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도 무대에 올라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전 악장을 여은영과 함께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한다.

해당 작품은 베토벤의 중기 교향곡 중 하나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그린 낭만적인 걸작이다.

특히 베토벤이 직접 '전원생활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붙인 표제음악으로 자연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로 재구성된 '전원'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운 아름다움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휴식 후 2부에서는 첼리스트 송희송과 함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제4번'으로 경쾌하게 공연을 이어간다.

두 개 악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베토벤이 직접 'Freie Sonata'(자유로운 소나타)라고 제목을 붙인 곡인 만큼 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연주되는 환상곡과 같은 소나타다.

이어 베토벤의 후반기 음악에서 나타나는 내면적 고요함과 감성적 깊이를 잘 표현하는 작품인 '6개의 바가텔'로 봄의 낭만을 전하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바가텔'이라는 이름은 본래 '작은 것' 또는 '사소한 것'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베토벤의 작품 속에서는 그 어떤 대작 못지않은 감정의 깊이와 음악적 표현이 담겨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www.daeguconcerthouse.or.kr) 또는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 1661-2431)에서 예매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아트웨이, 현대미술 작가 4인 4색 '영감' 세계 엿보다

(靈感)

올해 첫 번째 기획전 '신과 함께'
17일부터… 대중친화적 작품 선봬
전시 연계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아트웨이(이하 아트웨이)는 올해 첫 번째 기획전시 '신과 함께'를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스페이스2~4에서 개최한다.

아트웨이는 시민들의 일상공간인 범어역 지하도에 위치한 곳으로 지하도를 지나가며 예술가의 다양한 작품을 자연스레 관람할 수 있는 이색공간이다. 지하도 내에는 관람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어린이 예술 체험이 상시 가능한 예술놀이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 특히 대구 교통의 중심인 범어네거리에 위치해 탁월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첫 기획전시 '신과 함께'는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페이스2~4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다른 특정 종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 전시가 아닌 화가와 조각가의 신, 즉 '영감(靈感)'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품 속 예술가의 감각과 그들의 초경험적인 기운의 원천에 대한 탐구를 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시는 조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돼 관람객에게 현대미술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현정, 조정현, 채온, 최은철 총 4명의 신작과 함께 참여작가들의 그간의 주요 작업을 볼 수 있다.

△고현정은 각자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조정현은 인류세를 주제로 생명력을 잃고 화학처리된 썩지 않는 자연물과 지구환경을 연출한다. △채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알아가기 위해 주변 모든 사물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독창적인 회화를 보여준다. △최은철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사회 간의 양극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설탕 조형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아트웨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대중친화적인 화법으로 전시가 표현되기를 바랐다.

전시글을 작성한 백정우 영화평론가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 쉬운 현대미술을 개별 작가의 사고와 표현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기술한다. 이러한 화법을 통해 관람객의 감상 즐거움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작업실이 오는 22일과 4월 5일 오후 2시 예술놀이터에 마련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생 15명 내외로 대구아트웨이 누리집(daeguartway.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윤호세가연구소 유정 정윤숙의 수요문화칼럼

이공린, 여인행도권.

명(明) 식물 속 사군자, 문인의 관조(32)

(觀照)

중국 미술사의 흐름에서 회화 표현의 기법(技法)이 붓글씨(書法)의 필력(筆力)이 근간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공린(1049~1106년)은 북송 시기 문인화가로 학문의 문기(文氣), 문인의 화상(畵想)과 조화를 이뤄 창의적 백묘화법(白描畵法)을 보여줬다.

선대(先代) 화가들의 임모에서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당(唐)대 주방(周昉)이 그린 인물화의 선(線) 묘사, 고개지의 청록산수화, 이사훈, 장승요, 오도자, 한간 등의 장점을 살린 이공린의 회화 세계에는 소박하고 맑은 수묵과 신묘(神妙)함이 있다.

이천의 화품(畵品)에는 "이공린의 천재성은 모두를 뛰어넘었다. 안마(鞍馬) 그림은 한간을 초월했고 불상은 오도현 산수는 이사훈에 가깝고 인물화는 한간을 초월한 듯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사훈, 화장강절도화.

조림, 준마도.

동성로 청년버스킹 참가 모집
16일 오후 6시까지 42팀 선발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외 청년예술가 대상 공개 모집으로 42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에게는 동성로 일원에서 연중 3회의 공연 기회 제공, 교류활동 및 참가 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개 모집은 19세~39세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 구분 없이 거리공연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심사를 통해 총 42팀 내외의 청년예술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인디053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칼 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下)

안병일
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2694호에 이어= 특히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환경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균형 잡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반 청소년 준거집단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재직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단기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지역사회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필자는 청소년단체에 재직하면서 2800여회의 캠프 및 행사를 기획·운영해 115만7000명의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호연지기 등을 함양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했습니다.

특히 197회 청소년 국제행사를 기획 운영해 4만4523명의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소외계층(장애학생)캠프를 18년 동안 해마다 개최해 8000명의 장애청소년과 비 장애 청소년 간의 통합의 장을 마련해 통합교육 모델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훈육지도자 양성을 통한 효율적인 청소년지도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도자 연수를 368회 개최해(1박 이상 야영연수) 1만4566명의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박사학위 논문과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NGO'의 저서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와 기대효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에서 7년간 청소년학 담당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했음은 물론 명지대에서 3년간 객원교수로 재직하면서 안전정책 강의 등을 통해 안전 불감증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안전실제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학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권익신장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활동 정부지원 절실' 등 칼럼 202편의 청소년 칼럼을 언론에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경영 전문가로서 경영관리와 사업관리의 경험을 접목해 조직 내 소통, 혁신, 협업을 강화하고 사명감이 높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 특 별 기 고

여러분의 대구는 안녕하십니까?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2025년 대구의 안녕에 대해 마냥 웃으며 안부를 묻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재의 도시 대구는 청년인구 유출과 전국 최하위의 지역 총생산율과 합계출산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암울한 2025년을 맞이하고 있기에 대구는 안녕하지 못하다.

AI 시대와 양자컴퓨터의 미래가 눈앞에 다가온 올해도 대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로부터의 지원과 수혜적 정책을 바란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의 시대 속 대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역 본연의 고유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되뇌던 교육과 인재의 도시 대구의 부활은 대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에 좀 더 집중해 대구의 미래를 개척할 전문가와 인재로 지역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가치평가를 극복해 자주적인 도시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대구에는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기관들의 전통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을 통한 대구 인재 육성에 혁명적인 시도를 이어가야 하며 대구 교육의 재발견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전문가는 자격의 유무와 함께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무형의 경험치들이 함축적으로 집약된 인재를 말한다. 우수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소외되고 외면받아 온 향토기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그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기존의 대기업 종사자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인식보다 대구의 스타기업 종사자에 대한 존중과 지역인재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뿌리내린 지역사회의 동반자들에게 배타적 폐쇄주의가 아닌 전향적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윤리의식은 인재의 사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격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성장을 사람에게서 찾는 인재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재능과 역량이 아무리 우수할지라도 윤리의식이 결여된 인재는 공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윤리와 도시의 질서는 경쟁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윤리의식처럼 도시의 역사성은 자의식을 강화하고 현대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 그 어떤 지역도 보여주지 못한 선구적 역사인 국채보상운동이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까지 이어졌던 대구의 소중한 근현대사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구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열쇠는 치열한 지역 내 경쟁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모두가 도토리 키재는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뜨거운 내부경쟁으로 명실상부한 스타기업 스타인재를 키워 나가야 한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바라본 대구의 미래는 더이상 외부의 배려에 기대기보다는 대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는 서울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대구만의 고유성이 살아있는 창의적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사 설

규제·갈등 해소해야 신산업이 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지적하며 "최근 10년간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신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창조적 파괴에 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이것저것 다 피하다 보니 신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정 산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반도체, 자동차 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컸다.

그동안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IT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산업 육성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차량호출(타다), 리걸테크(로톡), 원격의료 플랫폼(닥터나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산업들은 해외에서 수년 전에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이 등장할 만큼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산업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전통 직역과 갈등을 빚었다.

발달하는 기술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산업은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사회적 지위를 선점한 기득권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어느 것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사이 글로벌 혁신 산업의 헤게모니는 인공지능(AI)으로 넘어갔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글로벌 G2와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는 2~3년으로 평가받는다.

학계에서는 이를 단숨에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동적인 신산업 환경의 기반이 되는 기술창업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 기술기반 창업은 지난 2021년 23만9620개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기술기반 신규 창업기업은 21만4917개로 집계됐다. 감소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선배 기업들이 앞서 겪은 규제와 갈등이 창업가들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는 신산업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신산업을 둘러싼 산업 규제와 사회적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술 쓰나미에 우리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는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될 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또 한 번 뒤처지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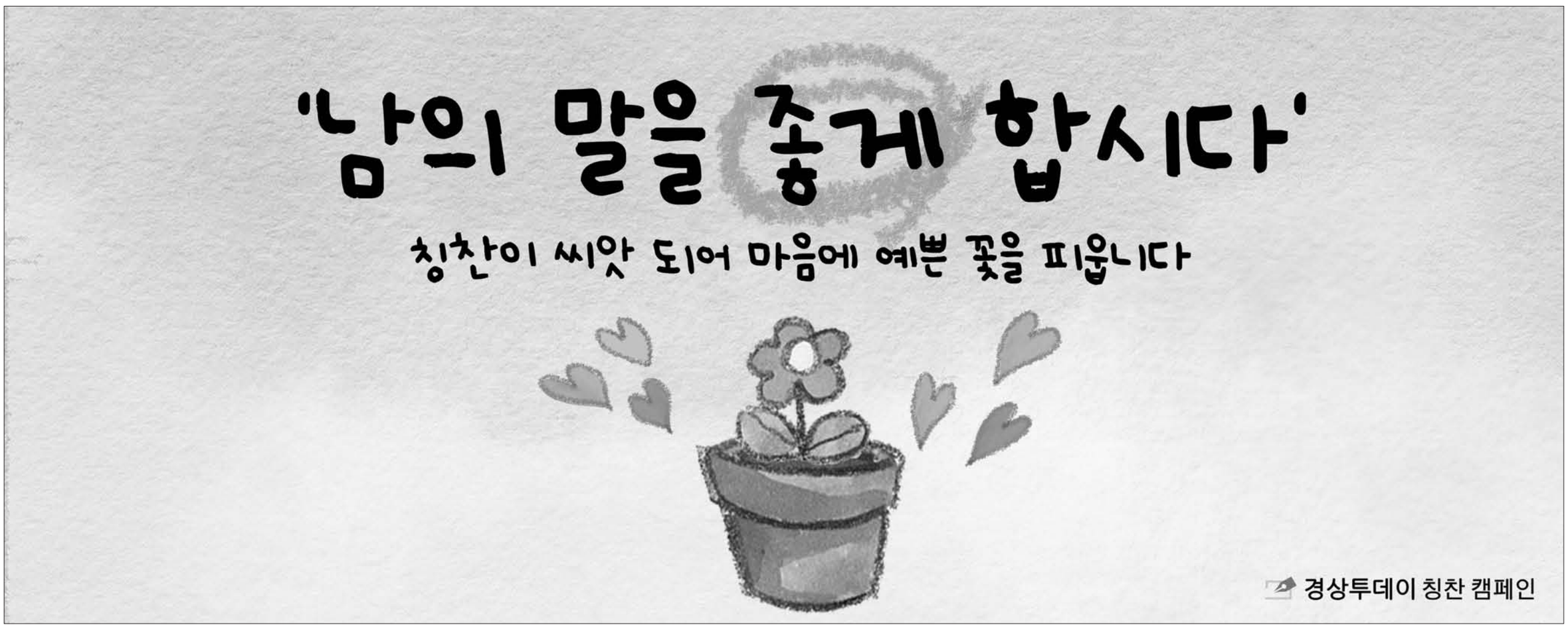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 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박 성 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 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 집 부	〈구내〉1004	문 체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 회 부	〈구내〉1006	정 경 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한국가곡 경연대회

경주향교 명륜당
2025년 5월 31일(토)

1. 접수기간

2025년 4월 1일(화)~2025년 5월 9일(금)

2. 참가자격(개인 1개 부문)

1)초등저학년부(1~3)-동요
2)초등고학년부(4~6)-동요
3)중등부-한국가곡
4)고등부-한국가곡
*홈스쿨링은 해당 학년에 지원 가능
*고등부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

3. 과제곡

동요 또는 한국가곡 1곡 (*창작 국악동요 또는 가곡 가능)

4. 문의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한국가곡 경연대회 문의처
경상투데이 : 054-748-0070(사업국)

5. 시상

전체대상(1명), 금상(4명), 은상(4명), 동상(4명), 입상(10명)
지도자상(2명), 한복맵시상(1명), 지역인재상(1명), 참가상(기념품)

상 별	초등저학년부	초등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전 체 대 상	장학금 300만원 및 상장			
금 상	장학금 50만원 및 상장			
은 상	장학금 30만원 및 상장			
동 상	장학금 20만원 및 상장			
한복맵시상	장학금 30만원 및 상장			
지역인재상	장학금 30만원 및 상장			
입 상	기념품 및 상장			
참 가 상	1차 예선 통과자 전원 기념품			

※ 심사위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1차예선은 본인이 부른 가곡(동요)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참가신청서 (3X4 사진부착) 1부와 함께 제출
-동영상 촬영시 노래 시작 사전멘트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한국가곡 경연대회 참가자 OOO) 삽입 필수
-콘테스트 홈페이지 접수 : http://contest.co.kr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경상투데이 이메일 접수 : today140331@naver.com
경상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동영상 파일과 함께 서류전형료(20,000원) 입금 후 제출
계좌번호 : 농협 352-1857-2108-33 예금주 : 이승협
(※입금자명은 반드시 참가자명과 동일해야 함)

7. 심사방법

심사기준 : 부문별로 각각 심사하되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2차예선 및 본선에서 한복 착용시 가산점 2점 부여.
1차예선 : 사전 접수된 동영상 심사 각 부문 20명 선발
-5월 12일(월) 오후3시 홈페이지(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표
2차예선 : 5월 31일(토) 현장 추첨 순서대로 진행(각 부문별 예선 시간 추후 공지)
본 선 : 5월 31일(토) 전형순서 추첨(전 부문 통합), 18시부터 시작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하여야 하며 2차 예선 진출자는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심사위원이 충분히 들었다고 인정할 경우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 포기할 경우 서류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개인적 사정에 의한 시간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주최측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참가곡은 변경할 수 없다.

■ 주최 : 경상투데이 ■ 주관 : 한국환경음악협회 ■ 후원 :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시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경상투데이기자협회 향교교육문화연구원 익수건설 에스케이(SK)경주충전소